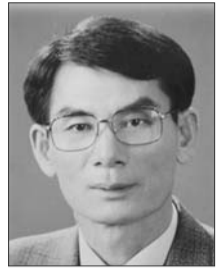


호매칼럼



이정랑 /중국고전평론가

‘병경백자’ 「간자」에서 분류한 16가지 ‘용간법’ 중의 하나다.

그 방법은 뇌물을 상대국의 군주 또는 장수의 심복 등을 매수, 그로 하여금 계속 무고한 말을 군수나 장수에게 울리게 하여 적의 유능한 장수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국의 모든 정책이 나 계략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기’ 「진승상세가 陳丞相世家」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204년, 천하를 두고 벌여 지는 조(楚)와 한(漢) 사이의 다툼은 조 패왕 항우(項羽)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형세였다.

열세에 놓인 유방(劉邦)은 진평(陳平)에게 물었다. “천하가 이렇듯 어지러운데 언제쯤 안정되겠소?”

진평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항우 밑에 있는 유능한 충신은 범증(范增)·종리매(鍾離昧)·용차(龍且)·주은(周殷) 등 몇몇에 지나

지 않습니다. 대왕께서 황금 수만 근을 내서 간첩 활동을 펼쳐 그들의 군신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항우를 공격하면 틀림없이 초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방은 이 계략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진평에게 황금 4만 근을 주어 이 계략을 실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진평은 이 황금으로 항우 군중의 일부 인물들을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대장군 종리매 등이 항우를 여러 해 동안 따르며 많은 공을 세웠으나 왕이나 제후로 봉해주시지 않아, 유방과 모의하여 항우를 멸망시키고 각자 봉토를 나누어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유언비어를 들은 항우는 과연 종리매 등 장수들을 더이상 신임하지 않았다.

뇌간(賂間)

- 뇌물을 활용하는 간첩술(賂間) -

항우는 부하 장수들이 의심스러워 사신을 유방 진영에 보내 그 소문들의 진상을 알아오게 했다. 유방은 이 사신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는 짐짓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범증 대부가 보낸 사신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항왕의 사신들이었군.”

그리고는 성대한 연회를 취소시키고 조촐한 식사로 바꾸어버렸다. 이런 보고를 받은 항우는 범증이 변심한 것으로 의심하여 더 그의 정적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가 난 범증은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다가 도중에 객사하고 말았다.

항우가 유언비어를 믿는 바람에 지혜로운 모사와 용감한 장수들이 중용되지 못했고, 실망한 그들은 속속 항우 곁을 떠났다.

결국, 항우는 해하 전투에서 패해 자결하고 말았다. 천하를 통일한 한

나라 고조 유방은 기원전 202년, 낙양에 모인 군신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항우에게는 범증이 있었지만 그를 제대로 기용하지 못했다. 내가 항우를 이긴 까닭이 거기에 있었노다.”

“투필부담” 「첩간 諜間·제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적의 정체를 알고 싶으면 천금을 아껴서는 안 된다. 천금을 아끼다 간첩을 잃으면 실패한다. 천금을 내어서 적의 정세를 이긴다. 이 승패의 기를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간첩에게 후한 상을 주어 있는 힘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목숨을 바쳐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첩을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해도 성공에 따르는 이익을 생각한다면 아까울 것이 없다.

모든 ‘뇌간’은 아무 곳에나 써 먹을 수 없다.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고 돈을 탐내는 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신앙도 없고 시시비비도 없고 그저 돈만 주면 기꺼이 있는 힘을 다한다. 따라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자기와 일할 대상을 결정하는 이런 간첩은 흔히 적에게 역으로 매수당할 가능성이 많다. 당나라 때의 군사 전문가 이정(李靖)은 이렇게 말한다. “물은 배를 움직이게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간첩은 일을 성사시키지만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간첩을 이용하되 간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천금을 내서 간첩을 잘 활용함으로써 적의 형세를 엿볼 수 있으나, 정보의 진위를 살피지 않고 간첩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 곤경에 빠지기 쉽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신용섭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감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모두가 앞장서야

최근 유명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등 ‘학폭 미루’가 사회적 핫이슈다.

학창시절 겪은 폭력 피해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는 등 학교폭력을 제때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해 평생 정신적 상처로 남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SNS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3월~4월 학교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통해 하루 평균 248건의 상담 및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월~2월 일 평균 신고 건수 100건인 것에 비하여 148% 증가한 수치로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급증과 함께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4년부터 각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건 발생 시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참석 등 교육청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접적 신고 외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 및 스마트 어플 안전 Dream’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 서로가 상처 주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폭력을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어른들의 관심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

독자투고

신중 보이스피싱, 편의점 업주 비상 주의보

살면서 뜬금없이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휴대 전화가 고장 났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며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달라는 문자를 받아 본 적이 있었는가?

많은 매체와 기관들의 홍보 활동을 덕분에 이와 같은 문자가 사기의 한 수법이라는 것과 사기범들이 주로 가족이나 지인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한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가족, 지인뿐만 아니라 구글 본사 또는 편의점 본사 직원으로 사칭하며 편의점 업주·종업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은 편의점에 업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편의점 전화번호로 걸어 종업원에게 자신을 편의점 본사나 구글 본사 직원이라고 사칭한다.

그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다. 업주와 통화해 보니 자신은 부재중이니 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대신하도록 요청해달라”라고 기망 후 기프트카드 재고를 알려달라고 한다.

이를 알려주면 사기범은 재고 수가 틀린 것 같으며 기프트카드 결제를 유도 시킨 후 다시 환불을 해주겠다고 뒷면에 기재된 핀 번호(16자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행한다. 이때 핀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그 사람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점주들의 지속적인 피해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해남시는 지속적으로 신중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하여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편의점 종업원 또는 점주들 또한 위와 같이 핀번호 전송을 유도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점주나 본사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발생할 시 즉시 112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진주(해남경찰서 경무계)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견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8800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http://www.honammaeil.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지국안내

- 총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춘...371-9584

-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담...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 리...010-5524-3638

지사안내

-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3647-6161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 화 순...010-3100-0386
영 광...010-96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37-6112
무 안...010-5420-1920
여 수...010-3621-3322

- 합 평...010-4829-1181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고 흥...010-9186-5252
광 산...010-7613-4320